

남자의 숙원

샌프란시스코에서 6 일 동안 11 차례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현지 목사님께 말씀드리자 내과 의사가 호텔로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다음 주 일본에 귀국할 예정인 그 교회 성도님인 의사가 저를 진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작년말에도 마지막 집회 때 허리를 펼 수 없게 되어 현지 교회 성도님인 정형외과 의사가 마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이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체류는 이렇듯 만사형통으로 만나는 분마다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딘가에다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린 것인지 제 넥타이를 하나 분실했습니다. 요즈음 집회지에 갈 때마다 무언가 하나 떨어뜨리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진 재해 후유증의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애견이 산보할 때 습관처럼 하는 마킹이라든지, 제게 주신 사랑이 넘쳐서 흘린 것이라고 웃음으로 얼버무리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귀국편 기내에서는 오래간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내용에 매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는 2007 년에 제작된 'I AM LEGEND' 로 2009 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인류 멸망의 위기를 상정해서 제작된 SF 영화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한 홍역 바이러스를 암 환자에게 주입하면 완치된다는 꿈 같은 이야기가 일변해서 사람들이 마치 광견병에 걸린 것 같이 흥폭화 되어 인류멸종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스토리입니다.

미국에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뉴욕시도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공기감염의 우려가 발생해서 사람들은 여지없이 피난을 강요당합니다. 일각이 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는, 혼란이 극에 달한 그 도시의 상황이 마치 저희들이 체험한 대지진 재해 때의 피난시와 매우 흡사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5 년이나 전에 상영된 영화인데도 마치 작년에 저희들이 직면한 사건을 예고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다” 란 대사도 가슴에 파고 들었습니다. 만약 지진과 해일만이였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내 집과 고향을 떠나 유랑의 여행을 계속할 필요는 없었을거라고,,, 또 다시 제 고향에서 폭발한 원전사고가 생각났습니다. 그 날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는 문제가 없었고 부상도 당하지 않았습니. 그러나 사이렌이 울리자 7 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정든 고향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고향사람들은 각지를 전전하면서 아직도 유랑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인류가 직면하는 첫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의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미군과학자는 감염자가 회복되도록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처자와 헤어져 홀로 뉴욕에 남습니다. 결국 그는 흥폭화한 인간에게 습격 당해서 죽어 가지만 죽기 직전에 면역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실험에 성공합니다.

어린 딸과 아내가 남편과 헤어질 때 아내가 홀로 남겨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남편에게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부디 곤경에 직면한 많은 일본인에게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영화를 끝까지 볼 여유가 생겼다가는 보다는 빠른 전개상황에 놀람을 금치 못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3 월 21 일 샌프란시스코~나리타편에서)

무사히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후쿠시마를 향해 차를 몰아, 바로 아파트의 준공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상으로 좋은 건물이 되어서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풀이 죽어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멋진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욥은 전 재산과 자녀를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되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지막에는 어쩌면 이와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갑절이상의 축복을 받았는지요.

신축아파트를 본 사람들이

“나도 입주할 수는 없습니까?”라고 문의해 옵니다. 집을 잃은 재해자가 넘치고 있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보고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준공 검사를 마친 저는 그 날 밤에 또 다시 차를 몰아 도쿄로 향했습니다. 오쿠타마(奥多摩)에서 약 3 시간 선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오키나와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그 오키나와에서 귀국편인 나하(那覇)출발 하네다(羽田)행에 몸을 실었습니다.

귀국후 이제까지의 줄타기 스케줄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드디어 내일은 일년간 신세를 진 오쿠타마(奥多摩) 바이블 캠프장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캠프장 관계자와 오쿠타마(奥多摩) 복음 그리스도교회의 여러분과 이 지역에서 신세를 진 사람들이 모여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여정에서 회사원인 남성이 9 번째로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점심 때 감사회는 ‘게이타린구’회사에서 저희들 모두를 위해서 초밥과 오드볼(hors-d'oeuvres)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년 분의 감사와 추억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격동의 일년을 매듭짓는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3 월 24 일(토)) 오키나와~하네다편에서)

지금 저는 JR 조반선(常磐線) 특급인 신형 슈퍼히타치를 탔습니다. 좌석 팔걸이에 콘센트가 있어서 신칸센을 탄 기분입니다. 우에노(上野)에서 지진재해 지역인 후쿠시마현(福島縣) 태평양해안으로 향한 열차라고해서 성원을 보내는 의미로 특별히 신형 차량으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고향 땅을 코앞에 두고 분단된 저희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주에 한 방송국의 취재를 받고 해일에 휩쓸려버려서 집 토대만이 남아있는 참혹한 해안을 안내하자 그만 말을 못하고 서계셨습니다.

그렇다해도 1 년만에 타보는 그리운 조반선(常磐線) 특급 슈퍼히타치입니다. 이전에는 센다이(仙台)에서 우에노(上野)까지 연결되어 있었지만 고향이 차단된 후로는 고향 남쪽 약 50 킬로 지점에서부터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조반 고속도로(常磐高速道路)도 센다이(仙台)까지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전에 고향이 분단되어 고향을 코앞에 두고 급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고향집을 잠깐 돌아보고 온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유령의 도시로 변해버린 고향을 이미 몇 번이나 봐서 알고 있을 터인데도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내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황폐해진 현관 문을 열 때마다 슬픈 현실과 대면하고는 낙심하여 돌아옵니다.

지난 주말부터 4 일간에 걸쳐 밀착 취재를 한 방송국 사람들은 1 년만에 후쿠시마로 돌아온 저희들의 표정이 침울해서 조금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환희의 표정을 지을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진실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동(關東)에서 차로 1 년만에 후쿠시마현의 흙을 밟았지만 그곳은 진정한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의 집은 아직도 먼 저곳 유령의 도시로 변한 저곳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준 기대에 어긋난 표정은 저희들의 이러한 복잡한 심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고향으로 향하는 여행의 종착역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피난생활의 연속으로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임시숙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지역에 친숙해져야겠고 우체국이나 병원을 찾아보며 새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갖추어 가야겠지요. 이 지역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 쉽잖은 새생활의 재 스타트를 자각하면서 저절로 긴장되어 있었겠지요.

후쿠시마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지만 진정한 고향집이 아니기에 슬프면서 기쁜 복잡한 심정이 영상에 그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배’ 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약 200 명 넘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몇번이고 안아일으키며 도움을 받아온 저희들이 이 일년을 매듭짓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세례식과 함께 캠프장의 책임자이신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먼 곳에서 보내온 편지와 새로운 여행을 축복해주는 연주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예배에 이어서 감사회는 크리스천이 경영하는 ‘게이타린구’회사에서 봉사로 초밥을 직접 만들어 주셔서 마치 결혼식 리셉션 같다는 감동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1 년 전에 모든 것을 잃고 지쳐쓰러진 저희들을 이렇게 풍부한 자연에 감싸인 오쿠타마(奧多摩) 지역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저희들을 따뜻하게 돌보며 위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부목사님이 이곳 오쿠타마(奧多摩)를 ‘도쿄(東京)의 시골’이라고 해서 모두를 웃기고 그 다음 순간에는 감회로 울먹이는 바람에 저마저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도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을 했는지,, 역시 저는 처음부터 만감을 자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요일은 전 날보다 더 심했습니다. 조반 후에 서둘러 이사준비와 대청소를 끝내고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의 여행길을 축복해 주시고 출발하려고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순간 몽클한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작별하고 날개펴 훨훨 날아가야만 하겠는데 파닥거리지도 못한 채 붓물 터지듯이 모두들 그러안고 하염없이 영영 울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는 아쉬움과 함께 뭔지도 모르고 지내온 격동의 1 년 속에서 소용돌이 쳤던 모든 감정들,,,

억울함과 애처로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과 분노, 그리고 깊은 감동이 영겨있는 감정들,,, 갈기갈기 찢긴 마음의 상처가 육신거리고 발버둥치고 신음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파도 되어 몸부림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말 힘겨운 일년의 고갯길을 모두 넘어온 것이라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전우들과 눈물로 작별을 고하듯이 저도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슬플 때는 울고, 외치고 싶을 때는 외치는 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겹겹으로 드세게 몰려왔다가는 사라지고 또 다시 겹겹이 영긴 감정의 타래들이 기승을 부리며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동북지방의 사람들은 감정을 잘 자제하지 않느냐는 말이 문득 머리를 스쳐지났지만 이 조차도 산산 조각이 되어 1 년 분의 겹겹이 영긴 몽치가 저를 누르고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방송국에서 카메라에 담아주셨는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때 자제심이 강한 방송국 관계자도 울면서 카메라를 돌리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 당시 바빌론에 강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은 70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랑 생활을 끝내고 바라던 조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걸쳐서 망향의 꿈을 품어왔던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때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들이 작렬했겠는지요.

시편 126 편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인지요.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을 오래전에 잊어버린 저희들도 슬픔과 감사 그리고 눈물과 웃음이 영겨 분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았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 편)

주일 아침 30 년 가까이 저희 교회와 가까운 관계로 지내며 몇 건물이나 되는 교회를
설계해 오신 설계사와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이전부터 저희 교회를 봐 오신 이
설계사는 이 일년 동안에 있었던 저희 교회의 격동의 발자취를 예전에 한국의
6.25 전쟁 당시에 갑자기 중국군이 몰려와서 괴멸상태에 빠졌을 때 한 부대가 본진을
잃어버리고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최후까지
싸우며 철퇴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계가를 깎아주셨습니다. 후쿠시마 제 1 교회도 그와
같은 처지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 교회이기에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성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앓았습니다.

저 시골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또한 몇 장소에 전도소를
세우고는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선교의 도전을 계속해 온 것이 모두 이 때를
위해서였던가?

돌연 지진재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버둥치며 괴로워하면서도 살아남아 다시 일어서서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였던가?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서 뛰어 왔는지요? 본진을 잃으면서도 빈사
상태에서도 다시 정돈하여 공격 태세로 전환되었는지요? 많은 희생과 눈물을 삼키고
패잔병이 서로의 어깨를 부둥키며 앞으로 전진하려 했는지요?

만약 당신이 그렇다고 대답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3 월 30 일 이와키출발 우에노행 조반선(常磐線)에서)